



“그래, 이 맛이야” 6일 오후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2012 팔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KIA 3번타자 안치홍이 4회말 무사 2, 3루 때 좌중월 스리런홈런을 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복덩이’ 복이 동점골

K리그 광주 FC, 대구와 2-2 ... 전남은 울산에 0-1 패배

광주 FC가 3경기 만에 승점을 추가했다. 광주 FC가 5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구 FC와의 K리그 11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44분 박현의 프로데뷔 첫 골과 후반

4분 ‘복덩이’ 복이의 시즌 4호골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 FC의 7경기 연속 무승 행진은 계속됐지만 경기초반 두 골을 먼저 내주기도 무

승부를 만들어내며 귀중한 승점을 더했다. 3승5무3패 승점 14점이 된 광주는 9위 자리를 지켰다. 한편 전남 드래곤즈는 6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서 후반 40분 고슬기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승점 사냥에 실패했다. 전남은 2승5무4패(승점 11)로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 방망이 ‘폭발’



KIA 장단 18안타... 선발 전원 안타
10-8 넥센 꺾고 2연승 ‘5월 대반격’

‘꼬꼬마 키스톤’이 잠자던 호랑이 군단의 방망이를 깨웠다. KIA 타이거즈가 6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시즌 6차전에서 선발 전원 안타행진 속에 18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10-8, 2연승을 달렸다. ‘키스톤 콤플렉스’ 김선빈과 안치홍이 팀의 연승을 책임졌다. 5일 김선빈이 4개의 안타와 3개의 도루를 기록하며 잠자던 방망이를 깨웠고, 안치홍은 6일 3점포 포함 5타수 5안타 5타점의 맹공으로 타선의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 두 선수는 수비에서도 활약 호흡을 과시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1회부터 KIA의 방망이가 불을 뿜었다. 톱타자 김원섭의 우전 안타에 이어 김선빈의 2루타가 나오면서 무사 2·3루, 안치홍이 우전안타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최희섭의 네 타자 연속 안타가 더해지면서 KIA는

1회에만 4점을 뿜아냈다. 2회 투키 윤완주의 내야안타를 시작으로 김원섭·안치홍의 안타가 나오면서 2점을 더한 KIA는 4회 안치홍의 홈런으로 한방에 3점을 보냈다. 8회말에는 앞선 4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던 8번 타자 이준호가 좌전안타를 때려내며 선발 전원 안타 기록도 작성했다. 8회초 불펜진의 난조와 3루수 홍재호의 실책으로 4점을 내준 KIA는 9회 장기영에게 솔로포를 맞으며 10-7, 3점차까지 쫓겼다. 박지훈이 마무리로 투입됐지만 강병식의 좌전안타와 박병호의 볼넷으로 1사 1·2루, 지식훈의 땅볼을 처리하던 홍재호가 다시 실책을 범하며 찾아온 2점차, 2·3루의 위기에서 투·타의 투키가 승리를 마무리했다. 박지훈이 오재일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고, 유격수 윤완주가 김민우의 깊숙한

타구를 몸을 날려 잡아내며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채웠다. 선발로 출격한 앤서니는 든든한 타선의 지원속에 7이닝 동안 6피안타(1홈런) 3탈삼진 2실점의 호투로 시즌 2승을 거뒀다. 주말 두 경기에서 30개의 안타를 몰아친 KIA는 6일 선발 전원 안타와 함께 5일 김선빈의 2루타로 통산 두 번째 팀 4만8000루타를 채우는 등 5월 대반전을 예고했다. 팀 승리의 주역이 된 안치홍은 “주자 있을 때 변화구 승부를 많이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타격을 했다. 빗맞기는 했지만 안타가 나오면서 다음 타석도 쉽게 풀렸다. 지난 주말 두산과의 경기에서 몸쪽 승부를 많이 하면서 너무 몸쪽을 의식했다. 몸쪽은 버리고 우중간으로 밀어치자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오늘 최다 안타, 타점 등을 기록했는데 팀에 추가점을 안겨준 4회 홈런이 가장 의미가 있다. 원래 번트 사인이었는데 포수 실책이 나오면서 강공 기회가 왔다. 어제 이어 오늘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팀이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등야구장에 선 ‘핵 잠수함’ 김병현

광주일고 졸업 후 처음 불펜피칭 ... 1군 데뷔 임박

돌아온 ‘핵 잠수함’ 김병현이 고향을 찾았다. 2군에서 몸을 만들어왔던 넥센 히어로즈의 김병현이 KIA 타이거즈와의 주말 3연전을 위해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첫 걸음을 했다. 정식으로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선수단과 동행하며 한국 무대 데뷔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야구 선수 김병현의 꿈은 무르익게 한 무등경기장의 방문은 1997년 광주일고를 졸업한 이후 처음. 김병현은 “고등학교 이후 처음 무등경기장 덕아웃에 앉는 것 같다. 즐겁고 새로운 기분이다”고 말했다. 오랜만의 고향 방문에 김병현은 바쁜 3일을 보냈다. 반가운 얼굴들과의 만남도

갖고 밀려드는 사인볼 요청을 소화하느라 분주했다. 6일에는 고향팬들의 환호 속에 불펜 피칭을 하며 마운드 복귀를 위한 스케줄을 소화했다. 넥센 김시진 감독이 지켜보는 앞에서 35개의 공을 던진 김병현은 “몸 상태도 좋고 정해진 스케줄대로 잘 준비해가고 있다”며 신무기 스피리터가 성공적으로 장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현은 “아직 1군 합류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 준비 잘해서 1군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다”며 “일단 익숙한 곳에서 공을 던지니 활기 넘치고 좋다. 고향팬들의 구수한 사투리가 최고다”며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 ‘일일 야구 해설자’ 변신

야구장 건설 계획 등 밝혀

강운태 광주시장이 6일 오후 2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 경기에서 일일 야구 해설자로 나섰다. 허규연 MBC 야구해설위원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해설은 1회까지 허규연 위원과 함께하면서 새 야구장 건설문제와 그간 기아의 성적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KIA 타이거즈의 V11을 기원했다.



강 시장은 신축 야구장과 관련한 허규연 해설위원의 질문에 “새 야구장은 시민들과 야구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이 주인되는 야구장, 누구나 이용이 편리한 야구장 그리고 친환경으로 건립한 아시아 최고의 명품 체육문화 복합야구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새 야구장을 광주천 자

전거 도로와 지하로 연결해 자전거를 타고 야구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올해에는 생활체육 야구장을 10개 정도 만들고 내년에는 생활체육 전국 야구대회 개최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A의 성적 부진에 대해서는 “최근 이용규 선수의 타격이 부진하지만 빨리 벗어나 잘 될 것”이라며, “이범호, 한기주, 양현종 선수 등이 부상에서 회복되면 곧 성적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야구 해설에 이어 1루석에서 다문화 가정 어르신들과 함께 KIA 승리를 응원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_ 062 - 221 - 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